

학회소식

1. 정례학술발표회

1) 한국법사학회 제115회 정례학술발표회 및 제8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시상식

주관: 한국법사학회

일시: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 30분~6시 30분

장소: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17동 517호 세미나실

<프로그램>

등록 및 개회(1:30~2:00)

개회사: 심희기(한국법사학회 회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제1부> 연구윤리 특강(2:00~2:30)

발표: 한상돈 (아주대 법전원 교수)

<제2부> 대주제: 한일 과거청산

제1주제: 국제법에 있어서의 과거의 부정의와 한일청구권 협정(2:30~3:40)

발표: 아베 코오키(카나가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

토론: 이근관 (서울대 교수)

---- 휴 식 (3:40~4:00) ----

제2주제: 한일과거청산과 식민지범죄(4:00~4:40)

발표: 조시현(전 건국대 교수)

제3주제: 한일 과거청산의 역사(4:40~5:20)

발표: 김창록(경북대 교수)

제2·3주제 지정토론 및 토론(5:20~5:50)

지정토론: 이철우(연세대 교수)

----- 휴 식 (5:50~6:00) -----

제8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 시상식(6:00~6:30)

폐회 및 만찬 (6:30~)

2) 제116회 정례학술발표회

일시: 2016년 4월 30일(토) 오후 2시~5시 45분

장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6(지하 1층)

<프로그램>

대주제: 개화기의 법 발전

등록(2:00~2:20)

개회사(2:20~2:30): 심희기(한국법사학회 회장, 연세대 법전원 교수)

사 회: 김창록(경북대 법전원 교수)

제1주제: 한성재판소와 평리원의 사법관(판사) 임용 패턴(2:30~3:30)

발표: 박천웅(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사회학 박사)

토론: 임상혁(숭실대학교 교수)

제2주제: 개화기의 환퇴(還退) 분쟁(3:30~4:30)

발표: 손경찬(홍익대학교 강사, 법학 박사)

토론: 김영석(서울대 법학 박사)

----- 휴 식 (4:30~4:45) -----

자유주제: 해롤드 버만(Harold Berman)의 역사 법학(historical jurisprudence)

(4:45~5:45)

발표: 김철(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서울오(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구결학회 · 한국법사학회 공동 학술 대회

기획주제: “大明律” 및 “大明律直解”에 관한 종합적 검토와 이해

일시: 2016년 1월 12일(화) 12:50~18:30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

주최: 구결학회, 한국법사학회(공동 개최)

후원: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규장각

<프로그램>

등 록: 12:50

개회사: 13:10~13:20

심회기(한국법사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 회: 임상혁(숭실대학교)

<제1부> 사회: 임상혁(숭실대학교)

제1주제(13:20~13:35): 홍무제의 통치 구상과 대명률

발표: 김경록(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2주제(13:35~13:50): “율해변의” · “율학해이” · “대명률강해”의 상호관계
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발표: 심희기(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제(13:50~14:05): 대명률상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처첩관계를 중심으로-

발표: 조지만(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14:20~15:20): 한상돈(아주대), 박성중(가톨릭관동대)

----- 휴 식 (15:20~15:40) -----

<제2부> 사회: 김성주(동국대학교)

제4주제(15:40~16:10): “大明律直解” 이두에 대한 문법적 고찰

발표: 정용식(경상대학교)

제5주제(16:10~16:40): 조선시대 대명률 제서유위조에 관한 연구

발표: 김대홍(서울대)

제6주제(16:40~17:10): 대명률에 쓰인 법률용어의 의미 분석

발표: 김영석(서울대)

제7주제(17:10~17:40): “대명률직해” 원문과 직해문의 대응 양상에 대하여

발표: 진운정(고려대)

폐 회(17:40~17:50): 사회-이병기(한림대학교)

폐회사: 김영옥(구결학회 회장, 서울시립대), 사진 촬영

식사와 간담회(18:30~)

3. 제8회 한국법사학회 瀛山 法史學 學術賞 시상식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6시에는 제8회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施賞式이 거행되었다. 이 상은 2008년 朴秉濠 명예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께서 후학을 격려하고 학회의 발전과 법사학의 진흥과 이를 통한 법문화 창달을 위해 출연한 “韓國法史學會 瀛山 法史學 學術賞”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법사학회가 주관이 되어 2008년 10월 25일에 영산 法史學 學術賞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한국법사학회 회원과 한국고문서학회 회원 가운데 우수학술상과 신진학술상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우수학술상은 격년으로, 신진학술상은 40세 이하의 학자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회에서는 2008년에 제1회 우수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각 1명을, 2009년에 신진학술상 2명을, 2010년에는 우수학술상 2명(공동)과 신진학술상 1명을, 2011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2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 2013년에는 신진학술상 2명, 2014년에는 우수학술상, 신진학술상 각 1명을 시상하였다. 이번 제8회 한국법사학회 영산 법사학 학술상을 위해서 심

사위원회는 법사학분야와 고문서학분야에서 다수의 논문을 추천받았으며, 심사위원회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고한 바와 같이 각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 수상자, 수상논문, 선정이유 및 수상소감은 다음과 같다.

1) 신진학술상(제16호)

수 상 자: 김영석(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수상논문: 『已行과 未行의 의미 - 조선의 用例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제50호[2014. 10])

선정이유:

大明律 등 전통법제는 已行으로 표시되는 결과책임에 대한 형사처벌을 기본으로 이루어져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未行으로 표시되는 예비 음모를 처벌했는데 이는 미수범과 구별되지 않아 법규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은 문리해석의 토대인 법 개념의 명확한 용례와 중국과 조선의 의미상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향후 법문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본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전통 법전과 우리의 전통법전에 같은 법률용어가 보인다 하여 그 의미가 같았을 것으로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되고 문맥을 잘 파악하여 해석·번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조선의 법체계에 편입되어 있었던 대명률과 조선의 법전에서 동일한 법률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조상들의 대명률 이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해당 법률용어를 대명률에 쓰인 의미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 즉 조선의 법해석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음을 밝혀내었다. 본 논문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많은 사람들이 법사학은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00여 년 전 대부분 국민의 거부감 속에 서양의 법이 강제로 이식된 탓에 아직도 국민의 법의식과 현실 법제도 사이에 괴리가 크기 때문에, 법사학은 매우 실용적인 학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할 때뿐만 아니라, 일부 판결을 접할 때에도 이러한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와 서양의 과거 법제가 어떻게 달랐는지, 어떠한 발전과정을 거쳐 왔는지 아는 것은 학자들보다는 오히려 법조 실무자들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실정법학자들은 법사학에 대한 무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쉽게 논문을 쓸 수 있고 또 실제로 쉽게 논문을 써내고 있는 분야라고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이번에 제게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을 주신 것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신진학술상(제17호)

수 상 자: 이상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상논문: 「대역죄인 告身의 殘存事由에 대한 일고찰-김종직·정인홍 고신의 사례를 중심으로-」(고문서연구 제43호[2013. 8])

선정이유:

조선시대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대역죄에 처해진 사람들은 가산을 적몰당하고 고신을 추탈했다고 알려졌었다. 그러나 대역죄에 처해진 인물 중 김종직과 정인홍 등은 그들이 생전에 받았던 고신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충훈부등록] 및 각종 법전 등을 샅샅이 추적해서 대역죄 처벌과 고신추탈의 관계를 규명했다. 즉 대역죄인에게는 그들이 저지를 범죄에 따라 5 종류의 형벌이 부과되었다. 첫째, 처형과 함께 적몰하는 경우 둘째, 유배형과 함께 적몰하는 경우 셋째, 적몰과 고신 추탈을 하는 경우 넷째, 유배형과 고신 추탈을 하는 경우 다섯째, 유배형과 적몰을 하는 경우이다. 김종직과 정인홍은 고신 추탈 하리는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고신이 그의 후손가에 잔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소한 것 같은 아주 작은 사실 하나를 규명한 것이지만 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역 죄인에게 내려진 처벌이 어떻게 나뉘고 국왕의 입장이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세밀하게 추적,

규명했다는 점에서 고문서학 연구에 작은 기초석 하나를 보냈다고 평가된다. 본 논문의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신진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수상소감:

저에게 큰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더욱이 학술상을 제정하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께서 참석하셔서 저에게는 더욱 뜻 깊은 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영산 선생님과 지도교수님이신 전경목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영산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저를 비롯한 고문헌관리 학 전공자 여러 학우들에게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경목 선생님께서는 항상 진심을 다해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애정을 담아 훈계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대신해 어머니 옆을 항상 지켜주는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생이 있었기에 편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늘 저를 응원해주신 저의 어머니께 이 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영산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 상에 폐가 되지 않도록 더욱 공부에 정진하겠습니다.

4. 회원동정

1) 한국법사학회 회원 김 철 교수가 신간을 발행하였다.
책의 제목과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Harold J. Berman 지음, 김 철 옮기고 주석, <법과 혁명 2-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전(前)편>(서울: 한국학술정보, 2016. 1. 29.), 630쪽: 한국어판 3부작 중 2번째 분권이다. 법과 혁명의 총론과 도이치 종교개혁까지이다.

2. Harold J. Berman 지음, 김 철 옮기고 주석, <법과 혁명 2-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 후(後)편>(서울: 한국학술정보, 2016. 1. 29.), 656쪽: 한국어판 3부작 중 3번째 분권이다. 본문에는 청교도 혁명을, 부록으로 근현대 혁명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전편은 해롤드 버만 『법과 혁명 II-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 영향』(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2003)의 총론 부분 및 게르만혁명(종교개혁)과 게르만법의 변화(16세기)를 다룬 부분까지 한국어로 옮기고, 한국 법 문화에만 익숙해왔던 한국어 독자들을 위해서, 주석을 붙인 것이다. 이 책의 후편 부분은 같은 책에 수록된 잉글랜드혁명과 잉글랜드법의 변용을 다루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책의 총론 부분은 근대 시민혁명 전부 및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 대한 일반 이론이고, 전편은 1517년 게르만의 종교개혁이 유럽의 법에 미친 영향이며, 후편은 1648년 이후의 영국 청교도혁명이 미친 영향이다. 후편의 부록에서는, 해롤드 버만이 각론으로 직접 다루지 못했던 1776년의 아메리카 독립혁명,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그리고 1989년 베를린 장벽붕괴를 정점으로 하는 동유럽 러시아혁명 전후를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철 교수는 책에 대한 질문 및 제의 사항이 있는 경우, 회원들이 언제든지 chullkim715@hanmail.net으로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전편>

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총론(Introduction)

제1부 게르만 혁명(종교개혁)과 게르만 법의 변화(16세기)

제1장 교회와 국가의 재정립(1517~1555)

제2장 루터주의의 법철학

제3장 도이치 법과학의 변화

제4장 도이치 혁명과 형사법의 개혁

제5장 도이치 사법과 경제법의 변용

제6장 도이치 사회법의 변용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전편)

색인

〈후편〉

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제2부 잉글랜드 혁명과 잉글랜드 법의 변용(17세기)

제7장 잉글랜드 혁명(1640~1689)

제8장 잉글랜드 법철학의 변용

제9장 잉글랜드 법 과학(English legal science)의 변용

제10장 잉글랜드 형사법의 변용

제11장 잉글랜드 혁명과 사법·경제법

(The Transformation of English Civil and Economic Law)

제12장 잉글랜드 사회법(English social law)의 변용

제13장 결론(Conclusion)

해롤드 버만(Harold J. Berman)의 생애와 학문

[부록 1] 법과 혁명: 아메리카 독립 혁명(1776년)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

[부록 2] 법과 혁명: 프랑스 혁명(1789년)이 법제도에 미친 영향-법과 종교의 관계를 겸하여

[부록 3] 법과 혁명: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까지의 러시아와 체코 행정법의 역사

[부록 4] 법과 혁명: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년)이 러시아의 법치주의와 입헌주의에 미친 영향-법과 권리의 우위원칙: 러시아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체제변환의 기초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후편)
 옮긴이와의 서신과 버만의 자필 서명
 색인

5. 운영위원회

회장	심희기(연세대)
부회장	한상돈(아주대, 편집위원장), 김창록(경북대)
감사	윤대성(창원대 명예교수), 이은영(한국외국어대)
총무	서울오(이화여대)
연구	정병호(서울시립대), 임상혁(숭실대)
정보	조지만(아주대)
편집	문준영(부산대), 성중모(서울시립대)
섭외	이종길(동아대)
편집위원	이재룡(충북대), 이영록(조선대), 임대회(경북대), 임상혁(숭실대), 문준영(부산대), 조지만(아주대), Marie Seong-Hak Kim(St. Cloud State Univ.), 성중모(서울시립대)

6. 학회비

비정규직 연구자(대학원생 포함): 3만원

정규직: 5만원

기관: 7만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424-850414 (예금주: 서울오)